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행 <33>

조주 스님이 문하 대중에게 설법했다. "부처를 염(念)하는 일이나 법(法)을 염(念)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학인 자신의 염(念)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염하는 자가 누구인가?"

학승이 말했다. "반려(伴侶)가 없습니다."

조주 스님은 혀를 차면서 아단치듯 소리를 질렀다. "이 당나귀야!"

師示衆云 不得閑過念佛念法
 僧乃問 如何學人自己念
 師云 念者是誰
 學云 無伴侶叱者驢

자기 자신에 대한 염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염법(念法)을 말한다. 오늘날 간화선과 비슷한 선불교 초창기 방법이다. 조주 스님이 학인에게 "염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물은 것에 대해 학인은 "반려(伴侶)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실 이 대답은 흠잡을 곳이 없을 듯해 보인다. 나(我)는 원래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는 것이므로 짝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혀를 차면서 아단치듯이 "이 당나귀 같은 놈야!" 하고 소리를 냈다. "그래가지고는 천방지족으로 이리 저리 날뛰는 당나귀 밖에 더 이상 될 것이 뭐있나?" 하는 소리이다.

염하는 자에 대해 학승은 분명 일리가 있는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조주 스님은 호통을 쳤다. 도대체 이 말은 어디에서 힘이 있는 것일까? 독자들은 한번 연구해 보길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해 만일 본 납자에게 "염하는 자가 누구인가?"하고 묻는다면 본 납자는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하고 말할 것이다. 천하의 납자들이여, 이때 어떻게 해야 조주 스님에게 아단을 맞지 않겠는가?

조주 스님이 법당에 나와서 대중에게 설법했다. "만일 제1구라면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되고, 제2구라면 인간계·천상계의 스승이 된다. 제3구라면 자신도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하리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제1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불조(佛祖)의 스승이 된다."

조주 스님이 거듭 말했다. "그런데 앞의 것부터 제기(頭起)한 것은 참 잘

염하는 자가 누구인가?

<念>

한 거야."

학승이 다시 한 번 더 물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웬걸, 이번에는 인천(人天)으로 갔군."

上堂示衆云 若是第一句 與祖佛爲師 第二句 與人天爲師 第三句 自救不了 有僧問 如何是第一句 師云 與祖佛爲師 師云 大好從頭起 學人再問 師云 又卻人天去也

제1구는 첫 마디이고, 말의 우두머리이고, 선(禪)의 핵심을 요약한 한 마디이다. 제2구는 재차 설명하는 말이고 좀 쉬운 말이다. 제3구는 거듭 거듭 아주 쉽게 해석한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제2구나 제3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는 하겠으나, 제2구나 제3구에서는 절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서는 한발 어떤 지식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선사가 하는 첫 마디. 제1구에서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가히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되고도 남는다.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절대 과장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일렀다. "이것은 그가 끄집어내지 않음도 아니고 내가 대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장차 무엇으로 대하시는지입니까?"

조주 스님은 길게 일성(一聲)을 울렸다.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장차 그것으로 대하시는 것이라면 학인의 부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조금 전에 나를 긍정했다면 나는 그대의 부탁을 저버린 것이고, 만일 나를 긍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대의 부탁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야."

師是衆云 是他不是不將來 老僧不是不祇對 僧云 和尚將什麼祇對 師長叮一聲 云和尚將這箇祇對 莫辜負學人也 無 師云 你適來肯我 我即辜負 若不肯我 我即不辜負你

선사의 첫 마디 제1구에 깨달아야 조사·부처의 스승이 되고도 남는다

선객들의 주제는 항상 도(道)나 선(禪)에 대한 것이다. 대담 중에 주제가 빠져있으면 그것이 곧 도에 관한 주제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학승들이 선사에게 와서 질문 때마다 사실 그것(道) 들어있지 않음은 없다. 다만 학승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선사자 어떠한 방편을 쓰던 역시 그것(道) 들어있지 않음은 없다. 다만 눈이 어두운 자는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알리는 것일까? 학승의 이 질문에 조주 스님은 "장탄식"을 해 보였다. "장탄식", 이 어찌 도를 들어 흔들어 보인도 아니겠는가? 그러하지 만 눈 밝은 납자라면 이 '장탄식'에 하자(假)가 있음도 보여야 한다. 다행히 학승이 그 하자를 찾아내어 조주 스님에게 "그런 표현을 하시더니, 대단히 실망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그대의 부탁에 부응코자 한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마쳤다. 이 또한 2구가 되지만 대중을 위해 마지막에 부언해둔 것이다.

그런데 학승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 곧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 했으니, 납자들은 조주 스님의 그 내밀한 의도를 알겠는가? 이 뜻은 황벽 스님이 임제 스님의 질문에 주장자 3번을 내린 뜻과도 같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빨리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기 바란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규 교수의 선어록 해제 14 전심법요

달마선의 근본을 해명하다

선의 목적은 깨침이다. 깨침은 궁극적으로 지혜의 계발이다. 이런 까닭에 선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한 자성의 개현으로서 결국 심(心)의 문제로 귀결된다. 애초에 청정한 마음에 계발되는 즉심즉불(卽心卽佛)이라든가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승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과 같은 말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표현한 말이다. 일찍이 헤가는 달마에게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원컨대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시오"라고 문의했을 때 달마는 곧장 "그 마음을 보여달라. 그대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리다"라고 말했다. 그 사실(史實)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8세기 말부터 9세기에 걸쳐 마조 - 백장 - 황벽 - 임제가 활약할 무렵에 위의 안심담담은 선의 기원(起源)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달마의 이름에 가락한 다양한 어록이 등장했다. 황벽의 <전심법요(傳心法要)>는 그와 같이 심법의 요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마선의 근본적인 진리를 해명하려는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전심법요>는 황벽 회운의 설법을 속가 제자인 배후(裴休: 797~870)가 필독할 것에 근거한다. 그 필독이 강서의 종릉(鍾陵)에서 회창 2년(842)의 설법과 완릉(宛陵)에서 대중 2년(848)의 설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본 서문에서 배후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황벽회운은 복건성 복주의 민현 출신이다. 그 전기는 <조당집> 권 16, <전등록> 권 9, <송고승전> 권 20, <천성광등록> 권 8 등에 수록돼 있다. 복주의 황벽산에서 출가하고 천태산에 유화하고 감서성 백장산의 회해에게 참문해 그 법을 이었다. 배후의 청에 응해 감서성 종릉에서 고향의 산을 떠나서 황벽산이라 이름하고 선풍을 거양했다. 842년에는 율용사에 주석하고, 848년에는 안휘성 완릉의 개원사에 주석했다. 시호는 단제선사이다.



고행(苦行) 40x60cm 2007 불, 한자수묵담채, 담원 김창배

황벽회운은 그 문하에 임제의현(?~870)을 배출했다. <송고승전>에 수록된 그 전기의 말미에는 "그 어록이 세상에 유행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 어록(語錄)이라는 용어의 최초이다.

배후(791~864)는 선종황제 시절에 재상을 지내면서 큰 공적을 남겼다. 유학자이면서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규봉종필(780~841), 동경 봉선원 원소(811~895), 정랑진권(738~839), 경사 대안국사 단

보(781~836), 경산지현(809~881), 보수원 신지(819~886), 위산영우(771~853), 황벽회운, 천경초남(813~888) 등과 교류를 가졌다. 또한 종필의 <선원제전집도서> 및 <원각경약소>에 서문을 쓰고, 황벽의 <전심법요>의 서문을 썼다. 방언거사, 무진거사, 장상영, 등과거사 소식, 이고거사 등과 더불어 중국 불교의 대표적인 거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전심법요>는 훌륭한 기본적인 선학개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논리적인 근거가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전심법요>는 전체적으로는 <황벽산 단제선사전심법요(黃蘗山斷際禪師傳心法要)>와 <황벽산단제선사완릉(黃蘗山斷際禪師宛陵錄)>의 2부로 구성돼 있다. 대중 11년 10월 8일자 배후의 서는 전자에 대한 서문이지만 그것이 인연이 돼 다른 제자들이 완릉에서 행한 설법을 정리한 것이 후자의 다. 곧 전자는 배후에 의한 종릉과 완릉에서 행한 설법의 기록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완릉에서 행한 설법의 기록이다. 다만 완릉에서 행한 설법의 기록은 이 이외의 기록도 달리 남아 있는데 명대의 <사가어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심법요>의 텍스트는 예로부터 일정했다. 마조도일 - 백장회 - 황벽회운 - 임제의현 4대의 어록을 모은 <사가어록>이 편찬된 것은 원종 8년(1085)이지만 <전심법요>는 그 중요한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사가어록>은 명나라 시대

에 재편된 것으로 <완릉록>의 후반에 현저하게 증보된 흔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천성광등록> 권 8의 본문을 그대로 부가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본래의 텍스트는 유포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가어록>의 편찬에 앞서 영명연수의 <종경록>에 부분적으로 인용돼 있는 것과 경력 무자년(1048)에 남송의 천진(天眞)이 <전등록> 권 9에 부가한 그 수부(首部)는 현재의 유포본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북송 말기부터 남송 초기에 걸쳐 복주 지역에서 출판된 2종류의 대장경에 포함된 텍스트는 현재의 유포본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한국에 전해진 <선문활요> 상권의 텍스트도 또 완전히 동일하다. 다만 명관 대장경에 포함된 <전심법요>로서 대장경신수대장경 제48권 수록본 및 명관 대장경 <고존속어록> 권 5에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는 후세에 수정된 것이다. ■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당신의 운을 열고 발복(發福) 시키는 천도 도자기 출현?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조상이 저승에서 안락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승에서 자신들도 정리정돈이 안되어 발복이 안되는 것이니라!"

현대과학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제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처럼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목숨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신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 성공 하는 것입니다.

아령) 영가의 장에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풍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등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 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며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던 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 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치우천왕 검색

◆ 무료사은품 : "기도의 비밀" 책자 + 치우천왕 CD + 치우천왕 적령부 카드 2장
 내마음의 절에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기(氣), 측정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을 측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가격: 49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내마음의 절) ■ 전화: 1661-2575

사)대한불교전통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불교대학(부산무형문화재제9호 작법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범용범패 불교의식반을 모집합니다.

- 아 래 -

- 과 목 :
 -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제 9호(나비)작법무
 - 천수바라 (다계작법, 운심계작법, 사다라니작법, 삼귀의작법)
 - 삼신이운, 거불, 복청계
 - 사물
- 교육시간 : 매주 월·화요일 (2010년 9월 6일 입학)
 - 오후 1시~3시 : 범용 범패(통영안정사소리) 및 사물 다루는 법
 - 오후 3시~5시 : 제 9호 오공양 작법무, 천수바라
-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1동 447-4 해동사
 - 1) 부산 영산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스님 직강
 - 2) 수료기간 1년 (10개월)
 - 3) 성적이 우수한 학인 무형문화재 작법무 전수장학생 추천
 - 4) 사)대한불교전통예술원 입학식 및 수료식

접수처 : 010-2563-5550 / 051)336-8975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권 해동사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 연수원

무료 수강생 모집

"이는 것이 힘이고, 기 능이 능력이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 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축,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립니다)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도 없음.
- 도구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강력한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3-01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